



신들의 시청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방송전파는 일반 공중의 소유이지 방송사의 것은 아니며, 방송사는 전파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권한을 부여받아 교육 및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시청자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따라서 정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방송사들이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하지 않도록 제재를 가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지만, 방송사가 '어떤 내용을 방송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을 방송사에 요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일반대중에게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필리핀의 사례가 도움이 될 것 같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 2009년 7월 중순경 방송전파를 보호하고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건전한 견제세력으로서 시청자의 역할을 증대하는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즉, 어린이의 TV 시청 가능 시간대에 과도한 폭력, 섹스, 막말 방송과 같은 저속한 프로그램이 방영될 경우 시청자가 불만내용을 손쉽게 제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심의기관인 어린이TV시청전국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Children's Television: NCCT)에 즉시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한 단문메시지(SMS) 형식으로 불만사항을 접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교육청, 어린이복지위원회, 전국문화예술위원회 소속의 3명의 심의위원들로 구성되어 어린이 시청 가능 시간대인 오전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방영되는 모든 TV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심의결과에 따라 벌금, 프로그램의 방영 금지 혹은 중지라는 중징계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대표적 소비자단체 중의 하나인 텔레비전시청자부모위원회(Parents Television Council)는 방송에서의 저속한 프로그램을 견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들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광고주들에게 광고계제를 철회하거나 중지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유사한 활동을 펼치는 소비자단체는 매우 다양하다.

물론 어떤 이는 방송에서의 '막장식' 소재나 표현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항변하거나 어떠한 표현의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설사 그 내용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라 하더라도, 단지 말초적 흥미를 배가시키기 위해 지나치게 극적으로 각색되고, 그래서 더욱 정상적이지도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은 내용들을 온 가족이 모여 시청하는 시간에 마치 일반화된 내용처럼 보여주는 것이 과연 방송에서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방송에서 프로그램 표현의 자유와 현실 반영도 중요하겠지만, 일반 대중에게 가급적 동시대의 공유된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긍정적 가치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사회나 국가 경제 발전과 경제 사회의 구조를 규정할 수 있을 만큼 대규모화되면서 기업의 활동은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커지고 그만큼 기업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법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 또한 커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시대의 사회에 이 같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만 하는 조직이 어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뿐이겠는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KAA**